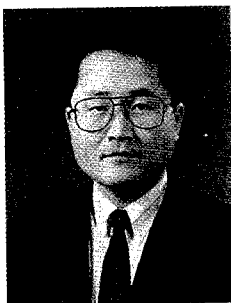


충남농정의 전개방향

농어촌활력화

10대시책을 중심으로

남궁 영
(南宮 英)충청남도
농정유통과장

1. 추진배경

지난 94년, UR이 타결되고 WTO의 신국경경쟁사회가 열리면서 우리 농업에 대한 걱정소리와 우리 농민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최소 시장접근에 의한 소비량 1%의 물량이나마 외국쌀이 국내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협상결과가 우리 전국민에게 충격으로 와 닿았었고 우리 농업의 존립에 대한 위기감마저 농민들은 물론 농정관계자들에게 까지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있는 이 즈음에서 96새해영농 설계교육시 2,630명의 농민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농민들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아주 자신있다'는 응답이 20%, '농산물 개방에 자신있다'는 응답이 46%로서 결국 앞으로 농사도 해볼만하다는 생각들이 다시 우리 농민들에게 살아나고 있으며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는 농정관계자들의 의지 또한 보다 더 커지고 있다.

지난 95년 하반기부터 충남농정의 책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활력화 10대시책」도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농정이 우리지역 농어민의 소리와 지역농정책임자의 약속사항을 중앙정부의 주요 농정방향에 접목시켜 농어민과 농어민단체, 그리고 농정공무원들의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들인 것이다.

특히 우리 농정공무원들에게는 우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이러한 시책들 하나하나가 우리 농업과 농어민, 농어촌을 위해 풀어 나가야 할 크나큰 숙제이기도 하다.

우리도에서는 이러한 10대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 투자재원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우리도의 농어촌발전계획으로 수용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100가지 실천사업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28%에 지나지 않는 우리도 현실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로 국비지원 사업이지만 적은 재원이거나 농

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 행정서비스를 하고자하는 사업들이 4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100가지 실천사업들은 매년 변화하는 농정환경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보완을 거듭하면서 사업별 지표를 근거로 매년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는 이른바 「지표관리시스템」에 의거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지고 있다.

아직은 1년의 성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해 한해 사업의 추진성과가 누적되어 가면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한결 튼튼해지고 우리 농어촌에도 부자농어민을 어렵

지 않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농어민들도 농업경영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I. 1차년(96)의 추진성과

지난해 100가지 실천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본 결과 우선 사업추진결과를 등급화해 볼 때 우수이상의 등급이 11%, 보통등급이 79%였으며 미흡하거나 부진하였던 사업이 9%,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조정이 1건이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총 투융자 계획 7,156억원에서 7,045억원을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써 98%의 실적을 보였으며 농수축산물 물류센터 조성 15억원, 종축장 이전 16억원 등이 올해로 이월되어 투자되지 못했다.

탁월등급에 오른 농기계 이동순회수리사업은 도내 오지마을과 영세농을 위주로 18개반 54명이 총 22,400대의 수리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특히 전 화예약제를 정착시키고 1

만원 미만의 부품은 무료로 제 공함으로써 농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농축산물의 수출에 있어서는 양돈과 인삼을 중심으로 9개 수출단지 14개 품목을 육성하고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95년 1억2천만불 수출실적을 지난해에는 1억8천만불까지 끌어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천수만 철새공원 조성 계획이 토지사용 협의지연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공군비행 작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으로 타 지역으로 옮겨야만 하게 되었고 인삼종합전시관은 지난해 부지매입 및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올해 2월에 들어서야 착공하게 되었으며 발소형관정개발사업은 당초 기대한 것보다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을 교체하여야만 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해 농어촌활력화 10대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우수사례로서는 농촌진흥원이 농민서비스 차원에서 대

농어촌활력화 10대시책

- 시책 1> 프로농어민육성
- 시책 2> 농사현장서비스확대
- 시책 3> 마을단위생활환경혁신
- 새책 4> 농어촌지역문화창달
- 시책 5> 유통판매지원확대
- 시책 6> 생산기반시설현대화
- 시책 7> 지역농업기술전략추진
- 시책 8> 전략품목수출시장개척
- 시책 9> 농어촌소득자원확충
- 시책 10> 성과주의 농정체계정비

전MBC와 을지대학병원 공동으로 추진한 농촌주민 종합검진서비스가 총 6회에 걸쳐 1,734명의 농민이 무료검진과 투약 등으로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도와 시군의 홍보·판매 노력이 한층 확대되어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200여평 규모의 농산물 백화점이 개설되었는가 하면 농특산물 구매가이드, 해외 홍보용 판촉물 등의 개발과 시군별 홍보·판매전 등으로 우리도 농특산물의 판매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Ⅲ. 2차년(97) 추진계획

올해의 추진계획은 1차년도의 기본틀을 지켜 시책과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효과가 당초 기대치보다 떨어지는 사업을 교체하고 농어촌활력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가하였다.

특히 올해 도정의 3개과제분야(교통, 물가, 환경)를 우리 농정에서도 수용하여 환경농업적 사업들을 개발·보강하였다.

따라서 발소형관정개발, 도농

연계 고향목장 시범사업 등 4건의 사업이 조정되었고 농촌지도소 개방실습실 운영 등 11건의 사업은 사업내용의 보완에 따른 통합 또는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축산기술교육센터의 건설과 농촌생활환

경시범촌 조성, 산림휴양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신규로 보강되어 추진중에 있다.

올해 보강된 새로운 사업 15건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활력화 10대시책 보강사업

□ 중점보강분야

- 환경농업과 산림공익성 제고 등 농어촌 환경보전 분야
- 인삼, 화훼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발기반정비 분야
- 과실, 특용작물 등 성장유망품목 및 농외소득확대 분야

□ 시책별 보강 사업명

- 시책 1) · 선도경영체 육성
 - 축산기술 교육센터 건설
- 시책 3) · 농어촌주택개발
 - 농촌생활환경 시범촌 조성
 - 산림공익기능 제고
 - 산림휴양공간 조성
- 시책 4) · 농어촌발전대상제 운영
- 시책 5) · 농산물 간이포장센터 설치
- 시책 6) · 발기반정비 확대
 -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 시책 8) · 금산인삼 세계화 추진
 - 세계 꽃 박람회 준비
- 시책 9) · 과실생산 · 유통단지 조성
 - 특용작물생산 · 유통단지 조성
 - 농촌특산단지 조성

관리방식에서 보장된 내용은 시군별 인센티브제 도입과 지역 농정기관단체와의 횡적 연계를 강화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지난해에도 이러한 방침은 있었으나 시군별 인센티브제 도입은 평가기준과 방법측면에서 객관성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분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농림부의 농림사업 평가규정을 지방적으로 수용하면서 가급적 우리도 자체사업에도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

즉,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절차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농어민의 사업선택이 올바르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한다.

이 사항은 92년 이후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 투자계획과 농어촌특별세 지원사업에 따라 대폭 늘어난 농어촌투자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적정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보조지원에 따른 이른바 '공짜의식'을 불식시키

고자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보조비율을 낮춰 3년 후에는 공공성이 짙은 사업,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 보조사업을 없애고자 하는 방침(대신 저리·장기용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과 더불어 사업능력을 가진, 그래서 사업의 추진성과가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역농정기관과 단체의 횡적 연계체계를 구축해 가고자 하는 것이야 말로 지역농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는데 필연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당장 국비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우리 지역 농어촌에 투자해야 한다는 표면적 필요만 보더라도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 농협, 축협, 각 직능별 연합회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하여 노력할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며 지역농민의 광범위한 농정참여를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도 관계 기관 및 단체간의 횡적

연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난해 23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바 있는 「지역농정협의회」에 올해부터는 농정분야 자문교수단(총 6명)까지 포함시켜 지역 농정현안을 해결해 가는데 공동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Ⅳ. 올해의 중요한 정책사업

올해의 농어촌활력화 10대시책 실천사업 중에는 앞으로 충남농정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정책사업들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그 추진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지만 그 중요성은 충남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지면 관계상 그중 몇 가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중부 농수축산물 물류센터 건설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에 부지 36천평, 건물 1만평으로 건설중인 「중부 농수축산물 물류센터」

는 총사업비 44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농업의 특성상 농산물이 지역·품목·생산주체별 산발적으로 집하·유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역류되어 그 손실액이 95년 기준으로 연간 1,003억원이나 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에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초현대식 물류흐름을 담당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우리도에서는 이 사업을 토대로 보통 4~6단계 이상으로 불합리한 유통마진이 형성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축수산물에 대하여 유통단계별 2~3단계로 대폭 줄이고 유통마진도 10% 내외에서 고정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 물류센터는 98년 하반기에 완공될 계획인데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축협 등이 공동 출자하여 주식회사의 전문가 경영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도민이 공동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도민기업으로 농어민과 도시소비자가 함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2. 충남농업종합센터 조성

충남농업종합센터 조성

- ▶ 위치 :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 ▶ 규모 : 부지 125ha
- ▶ 기간 : 1997~2001
- ▶ 총사업비 : 464억원
- ▶ 내용 : 충남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원종장 등을 수용하여 농업의 중심단지 조성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부지 125ha에 조성예정인 「농업종합센터」는 21세기 우리 충남도 농업을 이끌어 갈 연구단지를 종합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농촌진흥원과 원종장 등 농업연구 및 지도기관을 총망라하고 전문적인 농민교육시설은 물론 문화, 복지시설까지도 한곳에 모여 우리 농업과 농민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공주대학 등의 지역농정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보

고서에서 125ha의 부지내에 농촌진흥원 연구실험실, 포장디자인센터 등 60여종의 초현대식 농업관련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도에서는 이를 대폭 수용하여 내년도부터 부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투자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에서는 농업종합센터 조성 전담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수립작업 등에 착수키로 하였다.

3. 인삼 세계화 프로젝트 추진

인삼종합전시관

- ▶ 위치 :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 ▶ 규모 : 부지 3,131평, 건물 1000평
- ▶ 내용 : 무역센터, 전시장, 판매장, 국제회의장

우리도의 금산인삼은 우리나라 고려인삼의 핵으로서 전국 유통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량에 있어서도 도전체 1억8천만불의 농수산물 수출액 중에서 79백만불을 수출하여 42%를 상

회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전략 상품이다.

뿐만 아니라 인삼은 천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동양 최고의 명약으로써 건강지향의 세계적 물결속에서 세계화시켜 나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홍삼이 오랫동안 전매상품으로 머물러 오면서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우수성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아직은 세계적 명품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우선 금산을 중심으로 인삼타운조성을 위한 인삼종합전시관 건설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생산농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상품개발을 위한 인삼연구소 설치, 국제적 판매망을 형성해 나갈 판매시스템 구축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의 전담조직으로 구성된 인삼 세계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지역농정의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 우리 인삼이 세계적 상품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4. 2002년 세계 꽃박람회 개최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꽃 소

세계 꽃 박람회 개최

- ▶ 시기 : 2002년 5월
- ▶ 장소 : 미정
- ▶ 규모 : 국제공인으로
박람회를 개최하
되 적정규모
- ▶ 준비 : 전담 프로젝트팀
(3명)구성

비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일본시장의 꽃수요가 확대일로에 있는 환경에서 우리도의 서해안 지방이 화훼구근류의 적지로 알려져 있고 절화류의 경우도 내 곳곳에서 시설재배가 확산되고 있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농정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화훼산업진흥의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국제 꽃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5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비공인 국제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도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을 얻고 국제공인을 사전에 준비하여 세계 어느 박람회에도 뒤지지 않는 멋진 꽃의 축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농

촌진흥원에서는 알맞은 화종을 개발하고 농산과 등 화훼생산 유통사업 추진부서에서는 화훼산업 육성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이다.

V. 맺음말

이러한 농어촌활력화 10대시책과 그의 실천을 위한 100가지 중요사업은 앞으로도 충남농업의 골간을 이루며 우리도 농어촌에서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다. 다만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농어촌의 누적된 어려움이 일시에 해소될 수 없고 여전히 많은 농어민이 낮은 의욕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은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는 무리이겠지만, 21세기 냉엄한 국제경쟁사회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어촌을 지켜 나가고자 열심히 일하는 우리 농어민을 만날때마다 더할 수 없는 용기를 얻고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믿게 된다. '항상 노력하는 자에게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때이다.

열린충남